

# 국내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자 활용방안 모색 연구 -한·일 사례 중심으로-

이영선

((사)드림시티다문화공동체)

## 《목 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고령사회와 이주노동자
4. 한·일 이주노동자 활용방안 비교 연구
  - 4.1 일본의 이주노동자 활용방안
  - 4.2 한국의 이주노동자 활용방안
  - 4.3 한·일 이주노동자 활용방안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5. 결론 및 제언

### <Abstract>

**Lee Young Seon.** 2018. 6. 1.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Migration Workers for Securing Domestic Labor-Based on the case between Korea and Japa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2, 155-17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utilization of migrant workers in Japan, which has entered the aged society in the world first and the migrant

workers in the two countries with the rapid pace of aging, in order to find out how to utilize migrant workers,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multicultural society.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will find out how to utilize migrant workers in the aging society of Korea. Through this comparison, we have drawn out the implications of Korea through the case of Japan through the comparative examples of how the two countries seek to utilize the migrant workers. In addition, by studying examples of various uses of migrant workers in Japa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as a basic data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a successful aged society and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next wave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Finally, in the coming aging society, it should be fostered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create new jobs and enhance the capacity 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In the global era where aged society and multicultural society coexist, migrant workers should seek change in employment recognition, institutional support, welfare policy, education, diverse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policies and plans. This is expected to be a great roadmap for South Korea as a roadmap to prepare for the utilization of new migrant workers through their lack of labor force in multicultural society. **(Dream C.T. Multi-Cultural Center)**

[Key words] Aging, Labor force, National competitiveness,  
Migrant Workers Utilization, Multicultural society

## 1.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 사회가 우리들에게 시사하

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화두를 모토로 하여 여러 요인중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고령사회와 다문화 사회의 생산구성 인자인 이주 노동자 활용방안을 알아봄으로써 세계적 이슈인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와 함께 다문화 사회의 지향적인 발전에 기여함과 또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을 비교 조사하여 국내 다가올 초고령 사회와 거대한 다문화 사회 집단과 공존하는 현실에서 이주 노동자의 활용방안을 찾아 그 의미를 찾고자한다.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추세는 이주노동자의 수를 확대 시키며, 이주노동자의 인종도 다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며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추세는 이주노동자의 수를 확대 시키며, 이주노동자의 인종도 다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이정환, 이성용, 2007).

고령사회의 진입과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노동자 역할은 국제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노동력 활용을 통해 한국은 고령사회에 노동력 우위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미리 초령화사회로 먼저 진입한 일본과 같은 글로벌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고령사회와 다문화 사회가 공존하는 시대에 이주노동자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줄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고령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고령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접목시킨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고령사회와 이주노동자에 대해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조사하고 한국과 일본의 고령사회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양국가가 어떻게 이주노동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지 비교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

는 중요한 요소인 노동력을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활용을 통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고령사회와 이주노동자 정책 및 활용방안을 살펴본 후 한국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글로벌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제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이들의 활용 방안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이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 노동력의 혁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글로벌 제조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선진국인 일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동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고령 사회에 새로운 외국 인적 자원과 이주 노동자의 기술 투자 및 그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제간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공통적인 문제인 인구고령화의 해법을 위해 이민을 확대하는 정책 대안을 채택하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배타적인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화와 정책을 펼친 결과 인구고령화가 가장 가속화된 국가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부각된 시점은 1992년도를 시점으로 이루었고 또한 이주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통합에서 배제되었다(김영란, 2008). 그리고 최무형(2008)은 다문화 시대의 소수자 정책의 참여자로서 이주노동자를 접근하였다. 이미 독일은 유럽에서 이주인력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며 2004년 734만 명의 이주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잠재적 노동자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전중현, 2013).

유럽의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인해 이들 국가 간의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 늘어 갈 것이며, 이미 고령사회인 유럽에서 이주노동자의 위치는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고령사회 도달(예상) 연도			소요기간(년)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7% → 14%	14% → 20%
<b>한 국</b>	<b>2000</b>	<b>2017</b>	<b>2026</b>	<b>17</b>	<b>9</b>
<b>일 본</b>	<b>1970</b>	<b>1994</b>	<b>2005</b>	<b>24</b>	<b>11</b>
프랑스	1684	1979	2018	115	39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영 국	1929	1975	2028	46	53
미 국	1942	2014	2032	72	18

<그림 1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출처: 통계청(2011)저자,재인용

위 표는 주요국가의 고령화 속도를 표로 나타 낸 것이다(통계청 2011). 현대 경제연구원은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공급은 줄어들고 노동수요는 지속되기 때문에 2020년대부터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선진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한 현실이다.<sup>1)</sup>

김동환(2013)에 의하면 일본은 24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나라이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며 유럽의 경우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프랑스 115년 미국은 71년, 영국은 47년, 독일은 40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인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일본보

1) 김광식(2004)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출처:<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30010018405>.

다 심각하다.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이미 7%를 넘어 일찍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다가올 2018년에 고령사회를 맞이한다. 또한 7년 후 2026년도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된다.<sup>2)</sup>

지금까지 국내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자 활용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를 알아보았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초기의 이주노동자 활용을 1991년도에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통하여 취업을 활용한 것 뿐이었다(설동훈,1992). 특히 전현중(2010)는 일본, 미국, 독일 등과 같은 글로벌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한국 고령사회와 다문화 사회가 공존하는 시대에 이주노동자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로 인구고령화 대책으로 이민정책연구가 있다(설동훈,2015). 이주노동자 역할은 국제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노동력 활용을 통해 한국은 고령사회에 노동력 우위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고령사회와 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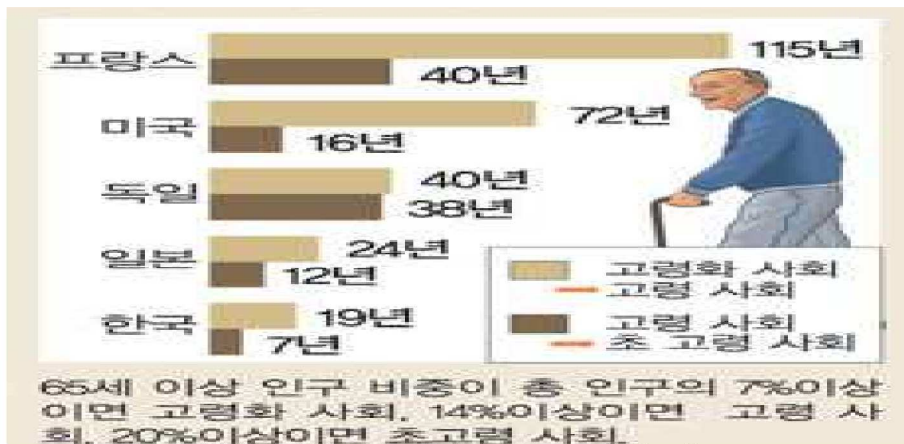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사회 진입과 다문화사회의 공존을 맞이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노동력 확보와 국가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서 이주노동자와 고령자의 고용 노동을 함께 대응해야하는 문제에 봉착 하게 되었다(손민중,2003). 이미 고령사회를 진입했고 초고령 사회인 일본, 유럽 국가의 하나인 독일은 고령자의 노동퇴출에서 고령자의 고용정책으로 실업율의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8년도에는 고령사회 진입의 문턱에 다가왔고, 2026년 초고령사회가 도래될 경우 노동 인구가 부족하여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되는 시대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통합의 일환으로 국제 이주 노

---

2) 김동환(2013) 「일본의 고령화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KIF VIP리포트> 제2013권 제10호, pp.4 재인용.

동자를 다각적인 측면으로 고용 촉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적, 사회적, 정치적, 다문화사회로 접근하여 국가 정책 수립과 제도적 보안,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 미래의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에 이주 노동자와 더불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의 고령사회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의 기회균등과 장래 국가 발전과 고령사회에 진입에 따른 노동력의 대체 활용 방안으로써 노동력 확보를 촉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령사회 증가 추세로 인하여 노동 생산 감소, 노동력 일자리 부족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은 향후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경우 일본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 2 인구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출처: UN.통계청(저자, 재인용)

위 그림은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한 것이다(UN.통계청). 즉 자국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 중 인 것이다. 이들의 다양한 선진 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 및 정책의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한국 고령 사회 진입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고령사회와 다문화 사회의 공존의 삶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상당한 도움을 주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고령사회와 이주노동자

고령사회와 다문화사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제 경쟁이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이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sup>3)</sup> 하지만 예상보다 1년이나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사상 처음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광역 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1.4%)이었고, 전남은 유엔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sup>4)</sup>

그러므로 이러한 고령사회에는 사회적 비용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에도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한국 노동력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일본 사례를 통한 한국 이주노동자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노동력을 극복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주노동자 역할은 국제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노동력 활용을 통해 한국은 고령사회에 노동력 우위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 역시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일본보다 심각하다.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현재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sup>5)</sup> 고령

---

3) 유엔(UN, 2001)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4) 65세 이상 인구 14% ... 한국, 고령사회 이미 들어섰다.  
출처: <http://news.join.com/article/21902070>.

사회가 재원 확보 문제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비하여 일본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체류조건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을 구조적 제도적 차원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에 대비한 산업 기반 강화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체류조건,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을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산업기반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노동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대비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체류조건,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을 제도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산업기반 강화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고령사회 현상을 알아봄으로써 미래 한국의 지향 할 바를 모색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의 정치적 망명자들을 유입 하면서 2차 대전 종전 이후 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sup>6)</sup> 독일은 1980년대에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않는 미숙련 외국 노동인력을 크게 받아들임으로써 사회 통합이라는 문제가 중요시 되었고, 프랑스는 1970년대에 이주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에 중점을 둔 소극적 유입 이었다. 각국은 이주 노동자 형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독일은 숙련된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과 프랑스는 출신국, 임시적, 영구적, 저숙련 및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프랑스내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을 충원한다.<sup>7)</sup>

---

5) 출처: 윤성훈 외(2011),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보험연구원 (저자, 재인용)

6) 박채복(2007) 「독일의 이주자정책 :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딜레마」 한독사회 과학회, 한독사회 과학 논총 17권 1호, pp.293-31

7) 김판준(2012)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민다문화연구』 창간호, pp.45-46

이주노동자의 유입의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 독일은 유럽에서 이주인력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며 2004년 734만명의 이주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잠재적 이주노동자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인해 이들 국가 간의 국제결혼, 다문화 또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이다.

노동자 유입이 크게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노동자가 확대 되었고 산업화로 인한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가기 희망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주 노동자의 유입을 통해서 프랑스는 산업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저숙련 노동력을 충족하였다. 각국들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글로벌 경쟁 우위를 위해 우수 인적자원 확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인 독일, 프랑스는 이주노동자의 위치는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다가올 초고령사회에도 새로운 고용 창출과 고급 인력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 고령사회와 다문화 사회가 공존해가는 글로벌 시대에 이주 노동자의 고용인식 전환이 요구되며, 제도적 뒷받침 및 복지 정책, 교육, 다양한 사회통합과 국가정책을 통하여 이주노동자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해야만 할 것이다.

## 4. 한·일 이주노동자 활용방안 비교 연구

### 4.1 일본의 이주노동자 활용방안

일본은 1952년 최초의 이민법이 시행된 이래로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는 원칙이 일본 이민 정책의 핵심 이었다. 그러나 1973년 10월 석유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를 둔화 시켰다. 또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젊은 근로자들의 고학력 추세로 인해 일본 경제의 특

정 부문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요인이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고령사회가 재원 확보 문제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비하여 일본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체류조건 출신국적별 노동 시장을 구조적, 제도적 차원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회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산업 기반 강화정책을 펴고 있다.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1억2809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일본 인구는 2030년께는 1억1662만명, 2060년께는 8674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된다.<sup>8)</sup>



<그림3 일본의 인구 추이>

일본 후생노동성(저자, 재인용)

출처:<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30298.html#csidxc9c96>

일본의 인구 감소 직면 현상은 일본 사회가 결국 외국인 노동자

10)일본후생노동성출처:<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30298.html#csidxc9c96>

‘수입’ 확대라는 결단으로 이어졌다. 2015년부터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인 기 능 실습제도’ 를 확대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 했다. 주요 내용은 취업기간을 3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다. 자민당 ‘일본 경제 재생본부’ 작업팀은 “인구 감소와 저 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필요하다” 는 제안서를 최근 정부 에 제출하였다.<sup>9)</sup>

또한 최근에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위해 서비스 용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0% 가까이 급성장하는 추세이다. 정부 주도로 2020년까지 약 2조4000억엔 규 모로 투자하며, 현재보다 20배 규모로 확대 계획이며. 로봇산업을 발달한 일본에서는 생활 곳곳에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호텔 룸서비스 및 양로원등 의료, 재해 현장 등에서 사람 을 대신할 로봇의 등장과 활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sup>10)</sup>

초고령 사회와 다문화사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노동 력 감소로 갈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제 경쟁이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주노동자의 경쟁 력 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4.2 한국의 이주노동자 활용방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65%가 불법 근로자이며, 합법

---

9) 인구 줄어드는 ‘초고령 일본’...결국 외국인 노동자 늘린다  
출처:<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30298.html#csidxc9c96> (검색일 2017년10월 22일)

11) 호텔 룸서비스까지...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온 ‘로봇’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164684>(검색일 2017년10월 8일)

근로자는 6%, 산업 연수생은 31%을 차지한다.<sup>11)</sup> 산업연수생이 아닌 합법적인 근로자 자격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장과 근로자를 연계해주는 전담 기구가 필요한 현실이다.<sup>12)</sup>

한국에 맞는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 업체의 제조업 투자와 고령 인구 참여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와 신기술 촉진 방안과 이주노동자의 기술혁신을 마련함으로써 이주 노동자의 우수 인력 확보와 퇴직 인력 우선 활용 계획을 통해 국제 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이주노동정책은 큰 틀에서 사업주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 이주노동자의 사업주 종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즉 사업주 고용허가 요건 완화와 이주노동자 취업 활동기간 연장,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억제 등이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노동을 국가의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인력풀을 마련하고 필요 외국인력의 선출로 인한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비해 기획과 자금, 실행 측면에서 우위이며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인력도입시기를 단축하고, 불법체류자 문제를 크게 개선시킨 정책이기도 하다.<sup>13)</sup>

#### 4.3 한·일 이주노동자의 활용방안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

11) 외국인근로정책,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79ing&logNo=11001039743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재인용, 김환철, 강창민(2011)

12) 류태모, 윤영삼, 최명구(2000) 「외국인근로자의 효과적인 활용정책방안 『대한경영학회』

13) 참여와 혁신 출처(<http://www.laborplus.co.kr>)

일본과 한국은 고령사회와 다문화가 공존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정책에 맞는 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과 기술 향상이 필요하며, 한국에 맞는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 업체의 제조업 투자와 고령 인구 참여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와 신기술 촉진 방안과 이주노동자의 기술혁신을 마련함으로써 이주 노동자의 우수 인력 확보와 퇴직 인력 우선 활용 계획을 통해 국제 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글로벌 선진국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주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 계획을 추진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우위와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된 발전과 저출산·고령화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 본다. 끝으로 자국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국제적인 이슈화 되어가는 다문화 사회의 제반적인 문제점과 사회통합 및 각국의 이주가족 통합과 국가의 장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동력의 경쟁 강화를 위해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국가의 장래를 위한 정책과 대안 방식이 아직 미미한 시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이주노동자의 활용 방안 사례를 통하여 한국에 다가올 초고령 사회진입에 기초자료로써 기여도가 높은 연구이며 새로운 이주 노동자의 행태와 이들의 활용 방안에 대비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되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력의 부족을 이주노동자의 활용방안을 통해 제시하고자하며, 노동력 확보와 그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제간 경쟁력확보에 본 연구는 기

여할 것으로 본다.

한편, 한계점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 시키며 부족한 노동 시장에 인력에 충원될 수 있어 경제적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장기적 고령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회적 비용 및 부정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계봉오(2015). 인구고령화,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불평등의 관계, <경제와사회> 106호, 비판사회학회. 41쪽~72쪽.
- 김동환(2013). 일본의 고령화 대책, <금융VIP 시리즈> 2013권 10호, 한국금융연구원. 1쪽~55쪽.
- 김관준(2012).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민다문화 연구> 창간호, 45쪽~46쪽.
- 김홍매(2011). 한국과 일본의 국제 노동력 유입정책 비교, <디아스포라연구> 5권 2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87쪽~118쪽.
- 김환철·강창민(2011).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정책, <행정문제연구> 8권 3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33쪽~153쪽.
- 김희재(2003).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정책, <사회조사연구> 18권 1호,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61쪽~93쪽.
- 류태모·윤영삼·최명구(2006). 외국인근로자의 효과적인 활용정책 방안, <대한경영학회> 24호, 대한경영학회. 273쪽~303쪽.
- 박채복(2007). 독일의 이주자정책: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딜레마, <한독사회과학논총> 17권 1호, 한독사회과학학회. 293쪽~319쪽.
- 박윤자(2013).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관련제도 비교 분석, <한국복

- 지실천학회> 5권 2호, 한국복지실천학회. 27쪽~42쪽.
- 설동훈(1992).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 사회>, 15호, 한국산업사회학회. 113쪽~144쪽.
- 설동훈(2015).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경제와 사회> 106호, 한국산업사회학회. 73쪽~114쪽.
- 손민중(2003). 고령화가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옥우석(2008). 이주노동자정책, 동아시아 시대를 대비해야한다,<미래전략연구>오감도, 1쪽~3쪽.
- 손민중(2003). 고령화가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환·이성용(2007).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30권 2호, 한국인구학회. 147쪽~168쪽.
- 이주은(2013).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유라아시아연구> 10권 3호, 아시아 유럽미래학회. 117쪽~144쪽.
- 이혜경(1994).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권, 한국사회학회. 89쪽~113쪽.
- 전현중(2010). 유럽의 이주인력 고용분석: 독일과 프랑스의 비교, <한국 유럽학회> 28권 2호, 한국유럽학회. 177쪽~207쪽.

## 사이트

- <http://news.joins.com/article/21902070>(검색일: 2017.10.10.)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30010018405>(검색일: 2017.10.8.)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30298.html#csidxc9c96> (검색일: 2017.10.2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164684>(검색일:2017.10.1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79ing&logNo=11001039743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검색일: 2017.10.20.)

#### 필자 소개

성 명 : 이영선  
소 속 : (사)드림시티다문화공동체 이사  
전자우편 : [yungsunshine@naver.com](mailto:yungsunshine@naver.com)

투고일: 2018. 6. 1 / 심사일: 2018. 7. 13 / 심사완료일: 2018. 7. 26